

책을 통한 사회운동, 급진주의 서점의 가능성

- 김벌리 킨더의 『급진주의 서점: 사회운동을 위한 대항공간』을 중심으로

이용희*

1. 서점사 연구의 비상한 활기
2. 급진주의 서점의 성격과 기능
3. '책을 기반으로 한 운동공간'은 지속될 수 있는가
4. 급진주의 서점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국문초록

이 글은 김벌리 킨더(Kimberly Kinder)의 『급진주의 서점: 사회운동을 위한 대항공간』(2021)을 통해 미국의 급진적 독립서점의 역사와 오늘날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살폈다. 이 책은 장소, 텍스트, 행동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77개의 서점 관계자의 인터뷰와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운동의 거점으로서 서점이 가진 '건설적인 대항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탐색했다. 김벌리 킨더가 주목한 대항공간 중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서점뿐 아니라 인포숍, 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센터 등 책을 주요 도구로 삼아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치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에서 다루는 급진주의 서점은 책의 거래와 더불어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정치적 운동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저자는

* 성균관대학교 강사

서점 공간과 책과 사회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새롭게 모색하며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로서 출판물 중심의 대항공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에 언급된 새로운 개념과 풍부한 사례들은 이 질문에 대한 실증적 대답이다.

(주제어: 급진주의 서점, 독립서점, 서점문화사, 대항공간, 책 기반 운동공간)

1. 서점사 연구의 비상한 활기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서점문화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영미권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여러 종류의 서점문화사 논저들이 발간된 바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주요 논저로는 2014년에 한국어판으로도 출간된 로라 J. 밀러의 『서점 vs 서점: 미국의 도서관매와 소비문화의 역사』를 위시하여 존 B. 톰슨의 『문화의 상인』, 시바노 쿄코의 『책장과 평대: 출판 유통이라는 미디어』, 휴 오스본이 엮은 『모더니스트 서점의 부상』, 앤드류 T. 카메이-다이치의 『근대 일본의 독서 공간』 등이 있다.¹⁾ 이 논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문헌 자료에 기반하여 ‘서점(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출판 및 독서 문화의 물적 기반과 구조 변동을 탐색했다.

1) Laura J. Miller, *Reluctant Capitalists: Bookselling and the Culture of Consum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John B. Thompson, *Merchants of Culture: The Publishing Busi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Polity, 2010; 柴野京子, *書棚と平台- 出版流通というメディア*, 東京: 弘文堂, 2009; Huw Osborne ed. *The Rise of the Modernist Bookshop: Books and the Commerce of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Farnham: Ashgate, 2015; Andrew T. Kamei-Dyche, *Reading Spaces in Modern Japan: The Evolution of Sites and Practices of Reading*, Cambridge Univ. Press, 2023.

이처럼 서점사 연구는 지성사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돼 있는 ‘출판과 인쇄 문화사’ 연구의 일환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영미권의 우수한 출판사와 대학 출판부가 몇 년 전부터 출판문화사 기획 시리즈를 출간 중이고, 해외 학계에서는 각종 아카이브 구축, 구술사, 연구 네트워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²⁾ 앞서 언급한 논저들과 더불어 이 프로젝트들 역시 책과 지식 확산의 중요한 매개인 출판 유통과 서점의 역사·현황·담론·경향을 탐구하고 여러 문화사 및 지성사의 논제들을 발굴하고 분석했다.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서점 통사, 개별 서점의 역사, 서점 단체(협회)사, 서점인 평전뿐 아니라 도시사, 지역사, 운동사, 여성사 등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으로 쓰여진 논저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서점사 연구의 활기는 2010년대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서점 산업 및 문화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대형 서점과 중소형 동네서점의 연이은 도산,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 플랫폼의 흥성, 독립서점 붐 등은 오늘날 서점 산업의 구조 변동과 경향성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주지하듯 오프라인 서점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독립서점³⁾의 부활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독

2)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의 ‘출판과 책 문화의 요소’(Elements in Publishing and Book Culture), 루틀리지 출판사의 ‘출판 역사 연구: 원고, 인쇄, 디지털’(Studies in Publishing History: Manuscript, Print, Digital), 팔그래이브 맥밀런의 ‘책의 역사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in Book History), 미국서점협회의 ‘서점인 구술사 프로젝트’(The Bookseller Oral History Project), 영미권과 유럽의 출판문화사 연구자들의 국제적 연구 모임인 서적 판매 연구 네트워크(Bookselling Research Network) 등이 최근 5~10년 내에 기획·추진되었다.

3) 주지하듯 독립서점(independent bookstores)은 영미권에서 대도시의 대형 체인서점(chain bookstores)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다. 한국에서는 동네서점이

립서점 붐에 발맞춰 그 부활의 요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상황과 맥락이 천차만별이겠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역 커뮤니티, 북 큐레이션, 모임(강연, 독서회 등)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⁴⁾ 다시 말해 지역 사회의 가치 증진, 도시의 일상적 경험, 문화적 다양성, 사람과의 교류 등의 측면에서 서점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식적 공공생활’⁵⁾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지리학자이자 도시학자인 킴벌리 킨더의 『급진주의 서점: 사회운동을 위한 대항공간』(이하 『급진주의 서점』으로 표기)⁶⁾은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번성하고 있는 독립서점 중 사회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서점들의 문화와 역사를 분석한 저작이다. 저자 스스로 밝혔듯 이 책은 처음에 미국의 어느 소도시에 있는 지역 독립서점을 조사하다가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서점의 운동 지향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물이다.(p.ix)

이 책의 초판은 2021년 3월에 발간되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젠트리피케이션, 디지털 구매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인해 소매업의 위

나 동네책방 같은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서점주의 취향과 개성이 강하게 반영된 현대적인 스타일의 도서 소매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용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서점’ 개념과 일부 중첩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영미권의 독립서점은 재정적 독립성과 지역성을 띠는 중 소형 규모의 도서 소매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 Ryan Raffaelli, “Reinventing Retail: The Novel Resurgence of Independent Bookstore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20-068, January 2020.

5) 레이 올든버그, 『제3의 장소』, 김보영 역, 풀빛, 2019, 43-63쪽 참조.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가 주창한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는 가정과 학교·직장 밖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대도시의 ‘비공식적 공공생활’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6) Kimberley Kinder,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1. 이하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기가 가중되면서 오프라인 상점 공간의 의미와 기능이 크게 달라지고 있던 시점이다. 또한 미국에서 2011년에 발생한 월 스트리트 점령 시위부터 BLM(Black Lives Matter) 운동, 트럼프 반대 시위,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여성들의 행진(Women's March), 환경 운동, 이민자와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치적 사건과 사회운동이 빈발했던 '저항의 10년'을 막 통과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회운동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찰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자는 이러한 미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부상한 운동공간으로서의 서점을 '급진주의 서점'(radical bookstores)이라 명명했다.

저자에 따르면, 급진주의 서점이란 출판물을 기반으로 사회운동과 사업을 병행하는 문화정치적 대항공간(counterspace)이다. 20세기 미국의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흑인, 페미니스트, 퀴어 서점의 전통을 계승하되 "새롭게 업데이트된 운동 목표와 사업 모델"을 갖춘 행동주의적(activist) 서점-운동체인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자가 시종일관 급진주의 서점과 일반적인 독립서점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독립서점들은 급진적 정치와 무관하거나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서점이 "사회 의식이 없거나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거나 소수자 정체성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급진주의 서점의 운동성은 일반 독립서점의 지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pp.3-5)

이 책의 연구 대상은 미국의 대도시에 위치한 77개의 급진주의 서점이다. 대부분 195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개업하고 운영되어 평균 업력이 약 25년이 넘는 곳들이다. 이 서점들이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이념과 가치는 아나키즘(20개소), 반인종주의(13개소), 반제국주의(10개소), 반자본주의(9개소), 페미니즘(9개소), 퀴어 해방(8개소) 등이며, 여러 테마들이

혼합돼 있는 ‘교차적 반역압’ 서점(8개소)도 있다. 형태별로는 서점, 인포숍(infoshop)⁷⁾, 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센터 등 책을 주요 도구로 삼아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김벌리 킨더는 여러 서점주들과의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급진주의 서점들이 어떻게 소매 업체와 운동공간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해 대항공간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가는지를 탐색했다.(pp.17-18)

이 책에는 텍사스 오스틴의 레지스텐시아(Resistencia) 서점이나 시카고의 피플 라이크 어스(People Like Us), 뉴욕 맨해튼의 블루스타킹즈(Bluestockings), 샌프란시스코의 시티 라이츠(City Lights)처럼 미국 대도시에 위치한 여러 급진주의 서점들의 사례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이 서점들이 각각 어떠한 경영 전략과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그 운영 주체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대도시에서 서점이라는 형태로 대항 인프라를 구축한 이들을 ‘행동주의 기업가(activist-entrepreneur)’라고 부른다. 그들은 “기존 권력 시스템에 물질적 위협을 가한다는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백인 특권주의,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에 도전”(p.3)하기 위해 서점을 사회운동의 진지이자 공론장으로 활용하는 활동가들이다. 이들이 구축한 소매업 정치(retail politics)의 전략, 즉 사회운동과 서점업을 결합한 사업 모델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가 이 책의 중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첫째로 급진적인 사회운동과 소매업은 병행 공존할 수 있는가,

7) 인포숍(infoshop)은 주로 서구에서 1960~70년대부터 등장한, 아나키즘에 기반을 둔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운동 공간이다. 급진적인 사상의 유통과 보급을 위해 출판사와 서점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팸플릿, 서적, 잡지, 포스터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급진주의 서점 가운데 인포숍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곳도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 ‘infoshop’: <https://en.wikipedia.org/wiki/Infoshop> 참조 (검색일: 2024.5.10.)

둘째로 (커피나 술이 아니라) ‘책’을 기반으로 한 급진적 운동공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는가, 셋째로는 급진주의 서점이 지향하는 급진성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등이 저자의 핵심적인 질문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기반하여 저자 김벌리 킨더가 『급진주의 서점』을 통해 주장하는 주요 내용과 개념들을 살피고, 미국 급진주의 서점의 성격과 기능,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점이라는 공간이 가진 잠재력과 한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문화사 및 지성사의 맥락에서 탐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급진주의 서점의 성격과 기능

김벌리 킨더의 『급진주의 서점』에 따르면, 미국 서점의 역사에서 급진주의 서점은 약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다. 1920~30년대 미국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던 공산주의 서점부터 1960~80년대에 번성했던 흑인 서점과 퀴어 및 페미니스트 서점에 이르기까지 급진주의 서점의 유구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다른 독립서점들과 마찬가지로 급진주의 서점 역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서점의 대형화와 온라인화의 영향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급진주의 서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급진주의 서점의 부활을 가능케 했을까? 이 책에서 그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로 산책하기 좋은 동네에 대한 관심 증가, 둘째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만지고, 냄새 맡고, 잡을 수 있는’ 감각적인 상품과 공간의 수요 증가,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소매점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구 증가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점의 형태를 취한 급진적 운동공간이 부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p.4) 과연 그러한가? 그럴 듯하지만, 불충분한 분석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립서점 붐을 설명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사회학과 도시학, 소비자학 등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검토 없이는 이 요인들의 실제적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듯하다. 더군다나 급진주의 서점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퀴어 해방, 아나키즘, 페미니즘, 반자본주의, 반인종주의 등의 지향과 운동성이 저 요인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분명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진주의 서점의 활기가 감지되고 있는 영국의 상황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영국에 거주하는 저널리스트 겸 작가인 시미즈 레이나(清水玲奈)에 따르면, “본래 급진적 정치사상을 가진 소수와 서점이었던 급진주의 서점이 사회와 문화의 변화 물결에 따라 다양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점으로 자리잡음으로써 런던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류 문화에 편입”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급진적 사상과 결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여기에 로컬리즘(localism)이 가세하면서 풀뿌리 정치와 행동주의를 구현하는 서점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문제는 급진주의 서점이 추구하는 운동 방식이 시각적으로 압도적이고 극적인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조용한

8) Natalie Hanman, “The return of radical bookshops”, *The Guardian*, Apr. 12, 2010.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0/apr/09/return-of-radical-bookshops> (검색일: 2024.05.16.); 清水玲奈, “「イギリスで社会現象になった『急進派書店』」”, *京都文学 レジデンス*, 2023.2.9. 등을 참조.

혁명'이라는 점이다. '경험 경제'와 '제3의 장소'의 시대에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의미 있는 경험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서점에 들른다고 김벌리 킨더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서점 방문객과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감각과 수요를 어떻게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급진주의 서점이 고민하는 우선 과제일 것이다.(p.53)

서점에서의 급진적 사회운동이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저자가 내놓은 답은 행동주의 기업가 정신(activist entrepreneurship), 오버레이 기능(overlay function), 사회운동의 레퍼토리(a social movement repertoire), 사회적 필터링(social filtering)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다.

저자가 급진주의 서점의 운영자로 규정한 '행동주의 기업가'는 "인쇄자본주의를 사회운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존재로서 '건설적 행동주의(constructive activism)'를 통해 이익 추구보다는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정치적 대의를 진전시키는 물리적 공간을 구축"하는 데 힘쓴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소비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논쟁적인 정치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이다.(p.52)

행동주의 기업가라는 용어는 미국의 역사학자 조슈아 클라크 데이비스가 1960~70년대 신좌파 시대의 활동가들이 집단적 사회운동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정치적 변혁을 꾀했던 사례를 분석하며 만들어낸 용어다.⁹⁾ 행동주의 기업가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시장 개척, 수익 추구 등의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만남과 교류, 이벤트를 창안하고 실행하는 문화 기획자 겸 활동가에 가까운 존재다. 그들은

9) Joshua Clark Davis, *From Head Shops to Whole Foods: The Rise and Fall of Activist Entrepreneu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주류 그룹과 대안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급진적 사상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초심자들을 대항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고민하고 기획한다.(p.58)

저자는 서점으로 시민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상처받은 약자와 소수자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진주의 서점의 본령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급진주의 서점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오버레이 기능(overlay functions)이라고 부른다. 이는 하나의 서점 공간을 도서 소매점, 파티장, 회의실, 창고, 홍보 공간, 상영관, 독서 모임 공간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조어다. 가령 독서회가 끝난 장소를 강연이나 음악회 같은 다음 이벤트를 위한 장소로 바꾼다(덧씌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점의 공간을 책을 포함한 다채로운 상품의 전시장과 이벤트 공간 등으로 변화무쌍하게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고, 사람들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치적 의제의 공유와 전파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카고의 급진주의 서점 겸 도서관인 ‘읽기/쓰기 도서관(The Read/Write Library)’은 도서 판매와 대여, 북클럽, 낭독회, 글쓰기 워크숍 등 일반적인 서점 및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더불어 ‘시끄러운 도서관’, 댄스 파티와 재즈 세션, 과학박람회와 인형극, 팝업 라이브러리 등의 독자 참여적인 이벤트를 조직하여 ‘사회운동의 레퍼토리’(social movement repertoire)로 삼는다. 또한 이 도서관은 시카고 지역의 각종 역사적 문헌들을 수집하여 ‘시카고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기도 한다.(pp.75-77)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카고의 역사 자료와 함께 미국의 흑인과 유색인종(BIPOC) 차별 문제에 관한 ‘대안적’ 책과 잡지를 읽으며 지역사와 사회정의 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자가 언급한 ‘읽기/쓰기 도서관’의 사례가 급진주의 서점의 ‘급진성’과 ‘운동성’을 충분히 논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책의 전반에 반복되는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라는 용어다. “건설적인 대항공간 만들기” 혹은 “건설적인 행동주의”(p.19)와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이 용어는 급진주의 서점이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류 공간과 대안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 즉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기획과 이벤트의 활용 전략을 지칭한다.

이처럼 소매점에서의 교류와 참여를 사회운동의 수준으로 확장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매점과 비영리 기관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래서 급진주의 서점은 ‘서점이 아닌 다른 형식의 소매점이나 기관’과 혼합된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체로 세 가지 형식의 급진주의 서점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비영리 단체와 결합하여 영리적 부문은 보조금, 기부금, 크라우드 펀딩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책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더라도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 도서관, 인포숍, 아카이브 공간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책을 판매할 뿐 아니라 책을 만드는 출판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서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서점처럼 보이지만 여러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익을 내는 문화센터 등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서점들의 대부분은 위 세 가지 형식을 창의적으로 혼합한 형태를 띤다.(p.15)

저자는 이러한 교차적 운영 방식을 통해서 급진주의 서점이 치유와 돌봄, 만남과 교류, 시위 지원, 공부와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서점 공간의 복합성과 다기능성이야말로 “급진적 세계관을 극화하는 공간 디자인”, “평등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관리”, “집단적 돌봄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프로그램”, “정치적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동원” 등의 ‘건설적인 장소 만들

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pp.6-11)

저자가 급진주의 서점의 사례로 든 것 중에는 텍사스 오스틴의 '레지스텐시아 서점'이나 시카고의 퀴어 서점인 '피플 라이크 어스'도 있다. 1970년대 시애틀에서 설립돼 오스틴으로 이주한 레지스텐시아 서점은 여러 라틴계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 아나키스트 그룹의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시민을 위한 교육과 독서, 학술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시카고의 서점 피플 라이크 어스(People Like Us)는 1988년에 설립돼 1997년까지 운영되었다. 성소수자 문화를 알리는 데 공헌한 시카고 유일의 퀴어 전문 서점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퀴어 소설, 퀴어 여행 가이드, 에이즈 환자의 생활에 관한 교육 자료와 무지개를 형상화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했다고 전해진다.(pp.27-49)

미국에서도 아나키즘이나 LGBT 운동 같은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운동은 항시적으로 사회적 억압과 규율,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급진주의 서점들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억압과 규율로부터 소수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필터링된 돌봄”(filtered caretaking)을 제공한다. 백인 우월주의와 유색인종 차별, 가정 폭력과 동성애 혐오 등의 위협으로부터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필터링’은 보다 활발한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해 서점이 지향하는 사회적·정치적인 아이디어에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을 서점의 구성원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안전 공간’으로서의 필터링된 장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더 솔직하고 밀도 높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pp.204-209)

급진주의 서점의 사회적 필터링은 일견 배타적이고 확장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장소’ 개념을 전유하여)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으로 포용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제3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급진주의 서점이야말로 고도로 ‘정치적인 제3의 장소’이며 한 사회가 도달한 민주주의의 수준을 증명하는 격전지라는 것이다. 미국 급진주의 서점 탄압의 역사¹⁰⁾가 이를 증명하는데, 1930~40년대 공산주의 서점과 1960년대 흑인 서점에 대한 FBI의 탄압, 네오 나치에 의한 서점 폭탄 테러, 2000년대 사형제와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인 서점에 대한 FBI와 경찰의 감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와 극우 세력의 서점 급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제로 2017년경 아나키즘이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급진주의 서점에 극우 활동가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기습 시위를 감행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pp.253-254)

이렇듯 대항공간으로서의 서점은 고립된 환경이 아니라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주류적 정치, 경제, 문화와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공 영역일 수밖에 없다.(p.39) 그래서 지배적 규범과 제도에 균열을 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운동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 급진주의 서점의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급진주의 서점』에서 언급된 주요한 개념들의 의미와 맥락을 살펴봤다. 이 책이 급진주의 서점을 설명하는 방식, 즉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과감히 적용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논의의 밀도를 높였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이론화와 개념화의 야망에 비해 설명과 논증이 부족해 쉽게 납득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서점 공간에 관계된 급

10) 급진주의 서점 탄압에 대해서는 Joshua Clark Davis, “The Forgotten World of Communist Bookstores”, *Jacobin*, NOV. 8, 2017; Joshua Clark Davis, “The FBI’s War on Black-Owned Bookstores”, *The Atlantic*, Feb. 19, 2018; Ally Fogg, “Why radical bookshops are an essential strand of political culture”, *The Guardian*, May. 1, 2014 등을 참조.

진주의와 운동성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느라 정작 서점의 고유 기능인 ‘책의 유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오늘날 오프라인 서점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 중 하나가 서점이 “더이상 책과 관련이 없는 곳”(p.92)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3. ‘책을 기반으로 한 운동공간’은 지속될 수 있는가

급진주의 서점은 사회운동의 진지이면서 동시에 책을 통한 지식과 문화의 생산·보급·수용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급진주의 서점』을 따라 읽다보면, 공교롭게도 ‘급진주의 서점은 서점인가?’라는 일견 모순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저자가 급진주의 서점을 “장소, 텍스트, 행동주의를 결합한 출판물 기반의 운동공간”(p.12)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논의 전반에 걸쳐 책보다는 서점이라는 공간의 운동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급진주의 서점』이 ‘책’의 특권적 지위와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책’은 대중의 접근성이 높은 대향공간의 장소성(sense of place)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저자는 “서구 문화에서 인쇄 자본주의가 특권적인 이데올로기 매체”(p.4)라고 전제하며 “책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로부터 벗어난 탈출구나 대안이 있다고 믿게 해준다.”(p.9)라는 영국 사회학자 니콜라스 토번(Nicholas Thoburn)의 말을 인용한다. 독서를 통해 얻은 유토피아적 사고와 상상력이 새로운 운동의 동력과 조직화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주장이다.

저자가 급진주의 서점의 ‘운동성’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집요하게 따져

묻는 질문은 “왜 출판물인가? 자전거, 음악, 커피가 아닌 출판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활동가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p.78)였다. 저자는 이 질문의 답을 20세기 미국 급진주의 서점의 역사에서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급진주의 서점사는 대체로 아나키스트 - 공산주의 - 반문화 - 흑인민권운동 - 페미니즘 - 퀴어해방운동의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여러 서점들이 이러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왔다.

미국 급진주의 서점사에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자리했던 공산주의 서점과 독서실이 선구(先驅)였다면, 1960~70년대 반문화(counterculture) 시대의 서점들은 현대 급진주의 서점의 직속 선배에 해당한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반문화와 비트 세대의 중심지 ‘케플러즈’(Kepler's)와 ‘시티 라이츠’(City Lights) 서점, 뉴욕의 전위적 서점 ‘피스 아이’(Peace Eye)와 퀴어 서점 ‘오스카 와일드 기념 서점’(Oscar Wilde Memorial Bookshop), 워싱턴 D.C.의 흑인 해방 서점 ‘드럼과 창’(Drum and Spear Bookstore), 오클랜드에서 문을 연 미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서점 ‘정보센터: 여성의 장소’(Information Center Incorporate: A Woman's Place) 등이 오늘날 미국 급진주의 서점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급진적 출판과 서적 판매는 사회운동의 레퍼토리”(p.83)로서 한 세기가 넘게 미국 사회의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90년대 대형 체인 서점의 확장과 아마존의 등장은 급진주의 서점을 포함한 수많은 독립서점계의 몰락을 초래하면서 미국 서점산업의 구조를 재편했다. 저자가 검토한 여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독립서점 수는 1990년대 5,0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04년 3,200

개, 2009년 1,650개로 급감했다.¹¹⁾ 독립서점 경영의 불안정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세계의 독립서점은 사업 확장=커녕 생존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독립서점 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작은 서점들의 연이은 폐업과 '서점 없는 지역'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다.¹²⁾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급진주의 서점은 어떻게 안정적 운영 기반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자는 급진주의 서점의 경영이 이윤 창출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과 같은 "시장 지향적 장소 만들기"(p.37)와는 다른 차원의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행동주의 기업가들은 임대료 지불과 사업 유지를 위한 기본 수익의 확보가 큰 숙제이며, 오래 버틸 수 있는 대항공공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급진주의 서점주들은 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 안정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저자가 77개 급진주의 서점들의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많은 곳이 영리 기업이지만, 약 절반(48%)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비영리, 약 1/3(35%)은 공동 소유 및 운영, 약 절반(51%)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급 자원봉사 노동에 의존"(p.18)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산업 복합체 등 사업 유형은 다를지라도 수익 창출의 압박은

11) 1980~90년대 미국 독립서점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는 로라 J. 밀러, 박윤규·이상훈 역, 『서점 vs 서점: 미국의 도서판매와 소비문화의 역사』, 한울, 2014, 234~240쪽 참조.

12) <작년 전국서점 2천484곳...봉화군 등 10곳은 한 곳도 없어>, 『연합뉴스』, 2024.2.28.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25400005> (검색일: 2024.05.16.); "本屋ない市町村, 全国で26% 業界はネット書店規制を要望, 懸念も", 『朝日新聞』, 2023.3.31. <https://www.asahi.com/articles/ASR3056M2R30ULEI004.html> (검색일: 2024.05.16.); "Why are New York's bookstores disappearing?", The Guardian, Mar. 4, 2019.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9/mar/04/why-are-new-yorks-bookstores-disappearing> (검색일: 2024.05.16.)

중소형의 사업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진주의 서점들은 어느 독립서점과 마찬가지로 도서뿐 아니라 커피·음식·스낵과 굿즈도 판매하면서 동시에 공간 대여, 유료 강의, 기부금 모집 등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잘 팔리는 상품을 가게 안쪽에 배치해 고객의 매장 이용도를 높인다든가(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다양한 굿즈를 계산대 옆에 쌓아둔다든지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수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다. 결국 서점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운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 시장과 타협하는 ‘모순’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pp.51-53) 예컨대, 반자본주의 운동을 펼치는 서점이 자본주의 시장과 타협해야 하는 모순, ‘서점이지만 책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파는 상점’이 되어가는 모순,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운동 목표를 희생해야 하는’ 모순을 견뎌야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pp.7-8)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경험경제’와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 서점은 “상품보다 경험, 감정,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고 “소비업과 비영리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점”이 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책을 취급하지만 점차 책과 무관해지는’ 현상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소매점의 문화적 역할과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p.93)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독립서점과 마찬가지로 책을 취급하는 서점이면서도 책과는 무관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급진주의 서점이 처한 모순적 상황이다. 저자가 긍정적으로 해석 및 평가하는 급진주의 서점의 중요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한 ‘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항공간’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 책의 독해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 중 하나는 급진주의 서점들의 수익 구조였다. 특히 출판물의 판매가 서점 수익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궁금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물론 참고할 만한 사례는 하나 있다. 저자는 뉴욕에 기반을 둔 에이즈 환자 지원 기관인 하우스 워크스(Housing Works)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기관이 운영하는 서점에서는 중고책 판매로 하루 1,300-2,000달러의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우스 워크스가 서점 운영 외에도 결혼식 대관, 영화 촬영 공간 대여, 음료와 스낵 판매, 기부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례적인' 행동주의 소매점(activist retail)이라고 밝혔다.(pp.65-67)

하우스 워크스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급진주의 서점들에서 책 판매는 서점 경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거의 모든 서점들은 인건비와 높은 건물 임대료 부담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감수해야 하고, 노동력은 “사랑의 노동(a labor of love)”이라는 명목 하에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심지어 저자는 ‘자기 희생’이 행동주의 기업가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한다.(pp.103-106)

제일 큰 문제는 공간 유지 비용이다. 서점 공간의 불안정한 입지와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점들이 직면해 있는 최대 위협이다. 저자는 많은 급진주의 서점들이 난방이나 배관 시설이 좋지 못한 변두리 지역의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운 좋게도 건물을 구입하거나 대형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말한다. 게다가 비교적 임대료가 싼 한계 입지(marginal location)조차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속화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여러 건물을 전전하다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는 서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pp.103-127)

또한 저자는 급진주의 서점에 대한 대중적 인식 변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컨대 수십 년 전에는 미국인들이 일부러 급진주의 서점에 방문하여 책을 사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영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한다. 급진주의 서점에 들어서 책을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관행도 늘었다. 이는 물론 모든 오프라인 소매점이 겪고 있는 곤경이다.(pp.102)

결국 오늘날 미국 급진주의 서점들이 처한 환경은 과거 서점업계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책 판매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이벤트 지향의 비영리 하이브리드 기업' 모델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것이 동네 커뮤니티의 강화나 독창적인 도서 큐레이션이 독립서점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식의 설명보다 얼마나 더 현실적인 해답일까? 독립서점의 붐과 진화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자의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급진주의 서점에서 '책'은 중요한 '기반'이지만 '중심'이 아니라는 것, 책을 매개로 공간과 이벤트를 판매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이다.

결국 급진주의 서점이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확실한 묘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작은 서점들은 쫓딱 망해 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말미에 저자가 희망적으로 내린 결론은 한 서점의 폐업이 "하나의 장이 끝나는 것 일뿐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급진주의 서점들 간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한 기존의 서점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고 더 튼튼한' 또 다른 서점이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한다.(p.267) 과연 가능

한 일일까? 급진주의 서점이라는 ‘건설적 장소 만들기’를 향한 낙관과 기대가 이 책 전체를 휘감고 있다.

4. 급진주의 서점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급진주의 서점의 부활은 단지 미국의 일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LGBTQ+와 유색인종 등 소수자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소수자를 위한 서점의 출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영국 전역의 서점 중 50여 곳이 급진주의서점연맹(Alliance of Radical Booksellers, ARB)에 가입돼 있는데, 이는 201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¹³⁾

이 같은 급진주의 서점의 활기가 영미권에 국한된 것인지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는 불확실하다. 잘 알려져 있듯 대체로 2008년을 전후로 한 세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서점산업 재편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에 서점과 타업종을 결합하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젊은 감각의 독립서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한 미국에 불어 닥친 반자본주의와 노동 운동, 생태주의, 다시 부활한 페미니즘 운동과 젠더 정치의 열기가 운동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급진주의 서점사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졌다는 사실을 각 국의 온라인 매체와 아카이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13) ARB의 회원 자격 조건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환경보호,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글로벌·내셔널·로컬 영역에서 정치적·개인적 변화를 추구하고 지원하거나 널리 알리는 책을 비치하고 판매할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서구의 급진주의 서점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清水玲奈, 「イギリスで書店が増え続ける理由」, 〈京都文学 レジデンス〉, 2023.1.27. 참조.

김벌리 킨더의 『급진주의 서점』은 1984년 영국의 급진주의서점연맹이 펴낸 가이드북과 2016년에 발간된 크리스틴 호건의 『페미니스트 서점 운동』¹⁵⁾ 이후 영미권에서 실로 오랜만에 나온 급진주의 서점 관련 서적이라고 한다.¹⁶⁾ 사회학, 정치학, 도시 연구, 페미니즘, 지리학 등의 학제간 접근법을 통해 대담하게 이론을 구축하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과 방문 조사, 구술사를 통해 현장감과 시의성을 높인 노작이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논의 전반에서 저자의 주장이 동어반복적이면서 단정적이고, 다채로운 사례들을 병렬적이고 평면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¹⁷⁾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이론과 개념을 미국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책의 독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서점문화사의 과제¹⁸⁾를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보

-
- 14) 영국의 급진주의서점연맹이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급진주의 서점의 역사에 대한 연구, 미국 뉴욕공공도서관이 개설한 ‘흑인서점 조사 가이드’ 아카이브 등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단행본이나 온라인 아카이브, 신문·잡지 기사 등을 통해 급진적 서점을 포함한 서점문화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진주의서점연맹의 Radical Bookselling History Newsletter (<https://www.radicalbooksellers.co.uk>) 등을 참조.
- 15) FRB, *Starting a bookshop: A handbook on radical and community bookselling*, FRB, 1984; Kristen Hogan, *The Feminist Bookstore Movement: Lesbian Antiracism and Feminist Accountability*, Dun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 16) Ross Bradshaw, “Book reivew: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By Kimberley Kinder”, *Radical Bookselling History Newsletter*, Issue 3, FBR, Oct. 2021.
- 17) Pepper G. Glass,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 Volume 51 Issue 5, SEP. 2022.
- 18) 이 글의 심사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급진주의 서점』의 논의를 한국 서점사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만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미국 급진주의 서점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급진주의’로 인식되는 근거와 맥락, 서구를 넘어서는 보편성에 대한 더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평의 요지였다. 과거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결합했던 서점들이 지향했던 급진성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서점문화사에서의 급진주의 서점사 서술에 대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에도 1920~30년대 학생·노동자·무산청년들의 독서회나 좌익서점, 1950~60년대 일본 사회주의 서적을 수입하던 외서점(外書店) 등이 있었다. 1970년대 말에 등장한 양서협동조합이나 1980년대 각 대학 인근에 자리잡았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급진주의 서점』에서 말하는 ‘책을 기반으로 한 대항공공적 운동 공간’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한국의 급진주의 서점사의 시대 구분이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문화운동가이자 생활인으로서 출판인 및 서점인이 가진 복합적인 정체성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서점문화사에 대한 문제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의 생계 터전으로서의 서점’과 ‘문화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서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입체적인 형상의 서점(인)과 서점문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¹⁹⁾

셋째, 지역사의 관점에서 서점문화사를 고찰하는 연구도 특정 지역의 몇몇 개별 서점에 대한 기사, 논문, 단행본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²⁰⁾ 현재

를 빌어 심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 예외적으로 전성원, 「제5공화국의 출판통제정책과 출판문화운동」,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4, 77-80쪽; 이진복, 「이진복의 출판동네 이바구」, 『아름다운 책의 도시』, 파주출판도시, 2006.8-11 등이 이념서적 유통의 매개자이자 생활인으로서의 서점주와 출판영업인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20) 임상민·이경규, 「식민도시 부산의 서점 연구: 1910년대 『부산일보』의 서점 광고란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4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3; 김동철·양홍숙, 「1906~1941년 부산 서적상 吉田市次郎의 『博文堂書店』 경영과 활동」, 『항도부산』 제45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3; 강성호, 『서점의 시대』, 나무연필, 2022 등을 참조.

까지 공표된 한국의 지역 서점문화사 연구는 각론과 총론 양면에서 모두 부족하고, 자료의 아카이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장은 과거에 출판계와 언론에서 쓰여졌던 지역서점 탐방 기사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요컨대, 한국 서점의 역사를 둘러싼 장소성, 지역성, 운동성의 성격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론을 수립하고, 각 매체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관련 자료들을 발굴 및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과거 서점들과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독립서점 간의 연결, 계승, 단절, 재창조의 지점이 무엇일지를 탐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Kimberley Kinder,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1.

2. 논문과 단행본

레이 올든버그, 『제3의 장소』, 김보영 역, 풀빛, 2019, 43-63쪽.

로라 J. 밀러, 『서점 vs 서점』, 박윤규·이상훈 역, 한울, 2014.

전성원, 「제5공화국의 출판통제정책과 출판문화운동」,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4, 77-80쪽.

清水玲奈, “イギリスで書店が増え続ける理由”, *京都文学レジデンシ*, 2023.1.27.

清水玲奈, “「イギリスで社会現象になった『急進派書店』」”, *京都文学 レジデンシ*, 2023.2.9.

柴野京子, *書棚と平台 出版流通というメディア*, 東京: 弘文堂, 2009.

Andrew T. Kamei-Dyche, *Reading Spaces in Modern Japan: The Evolution of Sites and Practices of Reading*, Cambridge Univ. Press, 2023.

Huw Osborne ed., *The Rise of the Modernist Bookshop: Books and the Commerce of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Farnham: Ashgate, 2015.

John B. Thompson, *Merchants of Culture: The Publishing Busi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Polity, 2010.

Joshua Clark Davis, *From Head Shops to Whole Foods: The Rise and Fall of Activist Entrepreneu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Kristen Hogan, *The Feminist Bookstore Movement: Lesbian Antiracism and Feminist Accountability*, Dun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epper G. Glass,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 Volume 51 Issue 5, SEP. 2022.

Raffaelli, Ryan, “Reinventing Retail: The Novel Resurgence of Independent Bookstore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20-068,

January 2020.

Rosie Levine Hampton, "Book review: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Urban Studies*, Volume 59, Issue 10, Aug. 2022.

Ross Bradshaw, "Book reivew: The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s By Kimberley Kinder", *Radical Bookselling History Newsletter*, Issue 3, FBR, Oct. 2021.

3. 기타자료

이건복, 「이건복의 출판동네 이바구」, 『아름다운 책의 도시』, 파주출판도시, 2006.8-11.
<작년 전국서점 2천484곳…봉화군 등 10곳은 한 곳도 없어>, 『연합뉴스』, 2024.2.28.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125400005> (검색일: 2024.05.16.)

“本屋ない市町村、全国で26% 業界はネット書店規制を要望、懸念も”, *朝日新聞*, 2023.3.31.
<https://www.asahi.com/articles/ASR3056M2R30ULEI004.html> (검색일: 2024.05.16.)

Ally Fogg, "Why radical bookshops are an essential strand of political culture", *The Guardian*, May. 1, 2014.

Joshua Clark Davis, "The Forgotten World of Communist Bookstores", *Jacobin*, Nov. 8, 2017

Joshua Clark Davis, "The FBI's War on Black-Owned Bookstores", *The Atlantic*, Feb. 19, 2018.

Natalie Hanman, "The return of radical bookshops", *The Guardian*, Apr. 12, 2010.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0/apr/09/return-of-radical-bookshops> (검색일: 2024.05.16.)

"Why are New York's bookstores disappearing?", *The Guardian*, Mar. 4, 2019.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9/mar/04/why-are-new-yorks-bookstores-disappearing> (검색일: 2024.05.16.)

위키피디아 'infoshop': <https://en.wikipedia.org/wiki/Infoshop>

영국 급진주의서점연맹 홈페이지: <https://www.radicalbooksellers.co.uk>

Abstract

The Possibility of Radical Bookstores as Print-based Movement Spaces

Lee, Yonghee(Sun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radical booksto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new trends through Kimberly Kinder's *Radical Bookstore: Counterspace for Social Movement* (2021). This book was evaluated as exploring the role and meaning of radical bookstores as a "constructive counterspace" as a base for social movements, using interviews with 77 bookstores' owners and various materials, focusing on the keywords of place, text, and activism. Kimberly Kinder's attention includes not only bookstores in the general sense, but also institutions that carry out various social movements with books such as infoshops, libraries, book cafes, and community centers. In other words, radical bookstores referred to in this book are the places where various political movements and communications take place through books, along with the transaction of books. It seeks a new connection among the bookstore space, books and social movements, and asks the question of how a "print-oriented counterspace as a repertoire of social movements" could be possible. The rich examples mentioned in this book are empirical answers to this question.

(Keywords: radical bookstore, independent bookstore, cultural history of bookstores)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6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3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